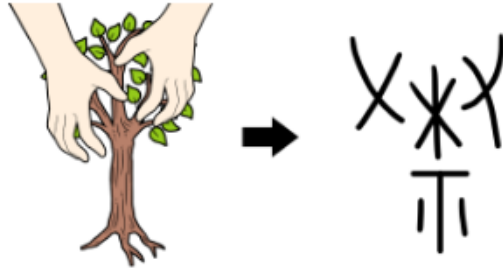


3(2)
-
171

회의문자 ①



拔

뽑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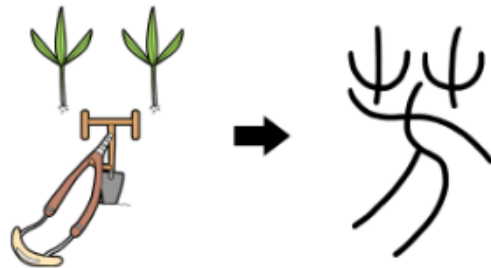
拔자는 '빼다'나 '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拔자는 手(손 수)자와 𢵿(달릴 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𢵿자는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拔자를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갑골문에서는 양손으로

나무를 잡아당기는 𢵿^𢵿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拔자는 본래 나무를 손으로 잡아 뽑는 모습으로 그려져 '뽑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뽑힌 나무를 𢵿자가 대신 표현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172

회의문자 ①



芳

꽃다운 방

芳자는 '꽃답다'나 '꽃향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芳자는 艸(풀 초)자와 方(모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方자는 발을 갈 때 사용하던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방향'이나 '널리'라는 뜻이 있다. 芳자는 꽃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널리'라는 뜻을 가진 方자에 艸자를 결합해 꽃의 향기가 '널리 퍼지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芳자는 사람에 비유해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방년(芳年)이라고 하면 여자 나이 20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를 뜻하고 방명록(芳名錄)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하는'이라는 뜻이다.

소전	해서

3(2)
-
173

회의문자 ①



輩

무리 배:

輩자는 '무리'나 '떼 지다', '순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輩자는 車(수레 차)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非자는 '아니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새의 날개가 넓게 펼쳐진 모습으로 응용되었다. 輩자는 무리가 떼 지어 다닌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무리를 짓는 모습에 車자가 쓰인 것으로 출정(出征)할 때 전차들이 무리를 지어 전진하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 輩자는 전차들이 날개를 펼치듯 횡렬로 줄지어 전진하는 모습인 것이다.

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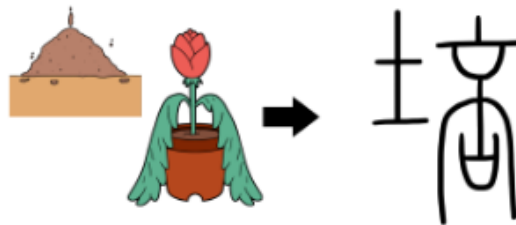
소전

輩

해서

3(2)
-
174

회의문자 ①



培

복돋을 배:

培자는 '배양하다'나 '양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培자는 土(흙 토)자와 厽(침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厽자는 잎을 늘어뜨린 식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식물을 그린 厽자에 土자가 결합한 培자는 흙에 심은 식물이 자란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培자는 식물을 키우는 것에서 유래했지만 사람을 양성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배재대학의 전신인 배재학당(培材學堂)의 뜻이 그러하다.

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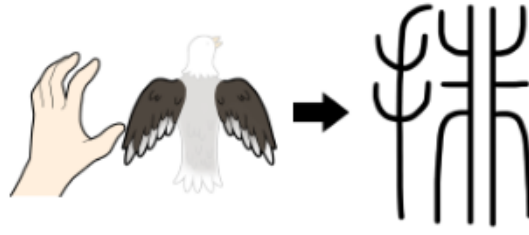
소전

培

해서

3(2)
-
175

회의문자 ①



排

밀칠 배

排자는 '밀치다'나 '배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排자는 手(손 수)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非자는 새의 날개가 엇갈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手자가 더해진 排자는 아닌 것을 거절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排자는 바르지 않은 것을 손을 밀쳐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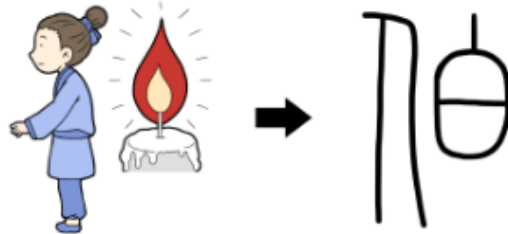
소전

排

해서

3(2)
-
176

회의문자 ①



伯

만 백




伯자는 '큰아버지'나, '만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伯자는 人(사람 인)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白자는 촛불이 밝게 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밝다'나 '희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밝다'라는 뜻을 가진 白자에 人자를 더한 伯자는 '밝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밝게 빛나는 사람은 무리에서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씨족사회에서는 형제 중 제일 만이를 伯이라고 했다.

伯

소전

伯

해서

3(2) - 177	<div>형성문자 ①</div> <div></div>						
<div>繁</div> <div>번성할 번</div>	<p>繁자는 ‘많다’나 ‘번거롭다’, ‘복잡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繁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敏(민첩할 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繁자를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금문에서는 每(매양 매)자와 糸자만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자가 큰 실타래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繁자는 실타래가 매우 많고 무성하다는 의미에서 ‘무성하다’나 ‘많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해서에서는 每자가 敏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p>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3(2) - 178							
<div>凡</div> <div>무릇 범(:)</div>	<div>상형문자 ①</div> <p>토담틀을 본뜬 것, 음(音) 빌어 대체로의 뜻(→汎)으로 쓰며 전(轉)하여 범상·보통(普通)의 뜻.</p> <p>-----</p>						

3(2)
-
179

형성문자 ①



碧

푸를 벽

궤자는 '푸르다'나 '푸른빛', '푸른 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궤자는 珀(호박 박)자와 石(돌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호박이란 소나무 송진이 화석화된 것을 말한다. 고대부터 호박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석을 뜻하는 珀자에 石자를 더한 궤자는 '푸른 옥'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푸른빛'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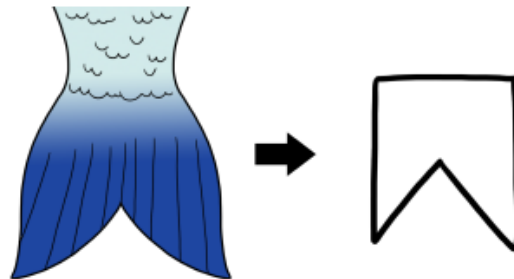
소전

碧

해서

3(2)
-
180

상형문자 ①



丙

남녘 병:

丙자는 '남녘'이나 '셋째 천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丙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탁자를 닦았기 때문에 고대 탁자를 본뜬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물고기의 꼬리만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인 <이아(爾雅)>에는 "魚尾謂之丙(어미위지병)"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물고기 꼬리는 丙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으로 볼 때 丙자는 물고기의 꼬리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丙자는 일찍이 '셋째 천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후대에서도 유래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丙

갑골문

丙

금문

丙

소전

丙

해서